

잘못된 건강상식

엉덩이가 클수록 아기를 잘 낳는다.



예로부터 듬직한 며느리감으로는 어깨가 둥글고 엉덩이가 큰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둔부가 크면 그만큼 아이를 잘 낳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아이를 잘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하지만 밖에서 보이는 둔부의 크기보다는 실제로 아기가 태어날 때 통과하는 골반 내강의 모양과 크기에 좌우된다. 언뜻 보기에는 왜소하고 가냘프게 보여 아이를 잘 못 나올 것 같은 여성이 의외로 순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퉁퉁하고 둔부가 큰 여성이 난산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살이 너무 많이 찐 여자는 오히려 마른 체격의 여자보다도 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중엔 무조건 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

임신 중엔 물론 약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태아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약이 기형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임신 중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약제도 많다. 또 산모가 활동성 결핵 등 특정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의사는 득과 실을 따져 득이 크다고 판단되면 임신 중에도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므로 임신 중 약물복용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약물복용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오히려 자신이 임신됐는 지도 잘 모르는 임신 12주 이내 초기로 이 시기에 태아의 주요장기가 모두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출산 때까지는 태아의 장기가 주로 성장하는 시기로 약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필요한 경우 비교적 안심하고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어떤 약이 위험하고 어떤 약이 안전한 지에 대해선 담당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비타민 종류(단, 비타민 A 과다복용은 주의해야)나 소화효소제 종류는 안전하며 피임약을 비롯한 일부 호르몬 제제는 기형아 출생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건강증진센터〉